2026년 11월 27일

Hana FX Daily Letter

한은은 매파적, 환율은 수급 변수에 주목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대외 재료 부재 속 수급 흐름 반영하며 상방 압력
daily range 예상: 1,340~1,352원

▪ 미국 금융시장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장하면서 주요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달러인덱스는 좁은 폭에서 등락. 이에 금일 달러/원 환율은 역내 수급 요인에 따라 움직일 전망. 특히 주요 반도체 기업의 배당금 지급일을 맞아 외국인 역송금 수요와 이에 대한 경계감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이를 반영하며 환율은 1,340원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고점 인식 속에 수출업체 매도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추가 상승 폭은 제한될 전망

▪ **전일 동향 : 26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0.1원 내린 1,343.9원 마감**
장 초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등 매파적 기조가 부각되며 1,340원선을 하회.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증시 순매도 전환 등의 영향으로 낙폭을 되돌리며 1,342.7원에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미국 금융시장 휴장으로 1,340원대 초반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며 마감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추수감사절로 인한 미국 금융시장 휴장 및 재료 부재 속 달러인덱스는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이어가다 강보합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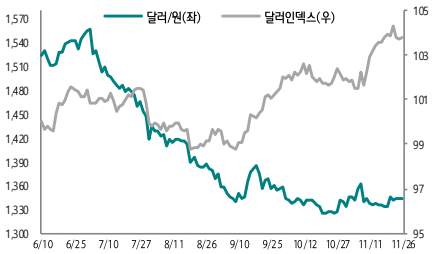
▪ **(유로-달러)** 차기 ECB 총재로 비둘기파 성향의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중시 기조가 부각되면서 유로화 약세 폭도 제한됨

▪ **(달러-엔)**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경우 통화 긴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BOJ 관계자의 매파적 언급이 나왔으나, 엔화 약세 압력이 이어짐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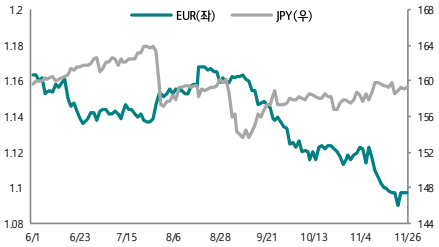
▪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고 성장률 및 물가 전망을 동시에 상향 조정하며 매파적 정책 기조를 재확인. 특히 '27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4.1%로 대폭 상향하며 올해 전망치인 3.9%를 웃도는 성장세를 예상.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IT 부문의 기여도가 확대되며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 여기에 반도체 기업 이익 및 투자 증가, 재정지출 확대 등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른 수요측 물가 압력 확대 가능성을 반영해 근원물가 전망치를 올해와 내년 모두 0.1%p 상향 조정했으며, 물가가 '28년에야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 종합하면, 견조한 성장세와 지속적인 물가 상방 압력을 고려해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한은의 색채가 드러난 금통위였음. 특히 점도표 중간값이 3.5%로 제시되고, 현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다수의 점이 분포한 점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 이와 같은 한은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는 국내 경기 펀더멘털 개선 및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맞물려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AI 투자 흐름과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44.0	1,345.6	1,339.3	1,342.4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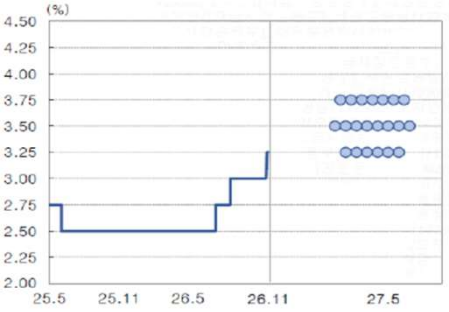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0968	159.26	6.6597
전일대비	-0.0005	+0.10	-0.0087
재정환율	1,474.13	843.74	201.72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9:00	유로존 11월 경제 심리지수	97.2	96.9
22:30	미국 10월 도매재고(MoM)	0.5%	0.7%

한은 기준금리 및 6개월 금리 전망



자료: 한국은행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